



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지구당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민과서 정영근



소신 · 능력 · 정직
기호 **2** **노무현**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 65조에 의거한 것임. 제작자 : 새정치국민회의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노무현

능력이 다릅니다.

1946년 8월, 단감으로 유명한 경남 진영에서 단감나무 한그루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딱! 치면 칼이 나온다 해서 '딱칼'이라 불리는 주머니칼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의 소가 아니라 자기집 소의 이끼리(고삐)를 잡고 '이랴' 하며 풀 먹이러 산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1959년, 6학년 담임이었던 신종생 선생님의 '하면 된다'는 말씀에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고 5백 2표 중 3백 2표를 얻어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1960년, 입학금을 가을에 주기로 하고 진영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63년, 장학금을 눈이 어두워(?) 부산상고에 입학하였습니다.

1975년, 울산 '한국비료' 공사판에서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책을 사서 제 1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일했습니다.

1988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5공 실세, 허삼수씨와 맞붙어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습니다.

1988년, 초선의원으로 5공비리 청문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1993년, 최연소로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1998년, 오십두살 딱 일하기 좋은 나이에 종로 국회의원 보선에 나섰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변호사로서 제법 잘 나가던 1981년, 부산의 대학생 20여명이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발톱이 새까맣게 죽는 고문을 당하며 빨갱이로 조작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학생사건, 노동사건을 무료 변론하는 인권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주도하였습니다.

1988년, 5공청문회에서 공부하는 정치인이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문회 스타가 되었습니다.

1990년, 3당합당으로 모두 줄서기를 하며 따라가는데 자신과 김정길 의원등 4명만이 남았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 남으려면 따라가야 한다는 온갖 희유와 협박을 뿌리치고 원칙이 있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1992년, 총선에서 무모하게 민자당이 아닌 통합민주당 타이틀로 부산에 도전하였습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국민들에게 동서화합의 필요성을 심었습니다. 자신을 던짐으로써 보여준 그의 생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찬조연설에 나섰습니다.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전국의 노조 지도자를 만나러 다니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몇해전 아들이 군대를 갈 때의 일이다. 아내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었다. 정치인이 된 것이 꼭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것이냐는 항변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성격을 아니까 겉으로 똑부러지게 말은 못하고 후방 그것도 편한 자리로 빼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을 편한 자리로 빼면 고생되는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 가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아내의 강한(?) 눈치를 무시했다. 그런데 후에 아이가 육군 보병 중에서도 힘들다는 60미리 박격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 애비로서 가슴이 시렸다.'

'사실 집안에선 나보다 아내의 꾀밭이 더 세다. 아내에게 쥐여살다 보니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고시합격 전까진 분명 내 맘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땐 아마도 내가 열등감이라도 가질까 싶어 아내가 많이 봐줬던 모양이다. 가끔 큰소리를 쳐보기는 한다. 그러나 어느 인터뷰에서 정치와 아내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내를 선택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부터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노무현 고백에세이 「여보, 나 좀 도와줘」에서 -